

복합운송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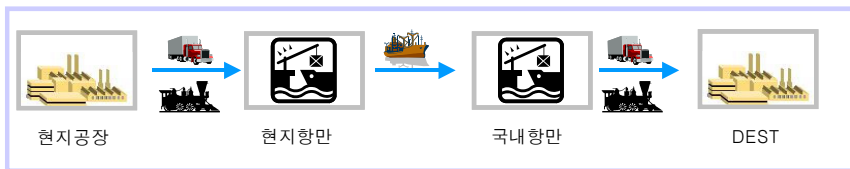
임영태

◆ 해·륙, 해·공 복합운송 체계

복합운송이란 “화물이 한 국가의 수탁 지점에서 다른 국가의 인도 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해상, 수운, 항공, 내륙 등의 운송방식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해·륙복합운송(Sea & Land)**과 **해·공복합운송(Sea & Air)**이 있다.

해·륙복합운송(Sea & Land)은 선박, 철도, 트럭 등의 수단과 조합되는 방법으로 해상 운송 수단을 중심으로 트럭 또는 철도와 같은 육상수단을 이용하여 중간 운송 단계를 거친 후 다시 해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운송방법은 많은 운반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육상 수송을 접목할 경우 중간 운송과정을 단축하게 되어 전반적인 운송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로를 통한 운반으로 Door to Door가 가능하게 되어 운송비 절감 효과의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해·륙 복합운송체계 과정

해·공복합운송(Sea & Air)은 해상운송의 저렴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하여 출하지에서 종착지까지 가장 효과적인 비용으로 일관운송을 행하는 방법이며,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중간적 형태⁶⁾이다.

기존 해·공복합운송(Sea & Air)은 중국, 일본 등 출발지역의 공장에서 차량으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한 후 CY에 입고하고, 페리를 이용하여 국내 항만으로 수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국내 항만으로 수송된 화물은 하역작업을 거친 후 차량을 통해 인천공항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하고 예약된 항공기로 최종도착지까지 수송하게 된다.

현재 해·공복합운송(Sea & Air)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해·공복합운송은 중국에서 화물을 집하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정기 컨테이션이나 카페리선으로 국내 항만으로 들어와 인천공항에서 북미, 유럽, 일본 등으로 운송되고 있다.



〈그림 2〉 해·공 복합운송체계 과정



임영태

6) 원동욱, 해·공복합운송의 활성화와 한·중 교통협력의 과제, 월간교통, 2005.1